
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023. 6.



해양수산부

목 차

I. 수립 개요	1
II. 재해보험 현황	2
III. 성과와 한계	4
IV. 비전 및 추진전략	8
V. 전략별 추진과제	9
1. 더 든든하게 보장	9
2. 더 낮은 부담으로, 더 편리한 보험서비스 제공	12
3. 지속가능한 보험운영 지원	15
VI. 이행계획	19

I. 수립 개요

□ 추진 배경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21.11)·시행('22.6))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의 성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비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중장기 전략
-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간적 범위: 2023~2027(5년)

□ 내용적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내용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법 제2조의2) >

1.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립 절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의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

* 심의회 구성: 위원장(차관), 위원 20명(당연직 6명, 민간 위촉직 14명)

Ⅱ. 재해보험 현황

①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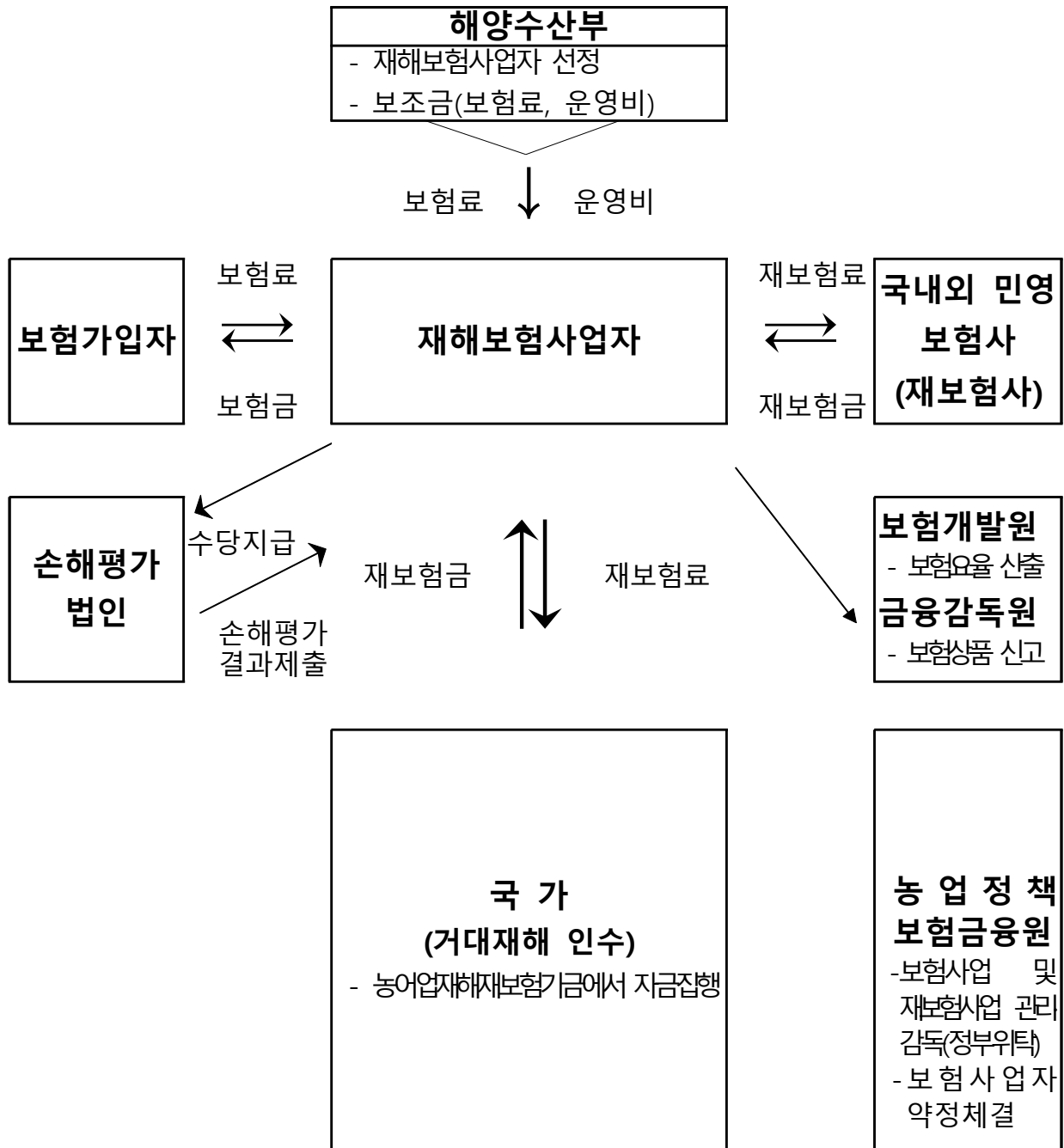
- **(양식업 성장)** '90년대 이후 양식 기술의 발전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기업화로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생산량 비중이 점차 증대
 - * 양식어업 비중(내수면 제외, %): ('90) 24.2 → ('10) 43.5 → ('16) 57.3 → ('21) 62.7
- **(피해 대형화)** 거대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 발생, 종전의 피해 대책은 시설 복구 및 생계비 지원 위주로 지원
 - 피해액과 보상액 간 괴리가 있었으며 신규 투자비용(약 3~5억원)이 높은 양식어가 경영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
- **(자연재해 담보)** 양식업은 자연재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 예측이 불가능해 시장원리에 따른 재해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
 - * '01~'02년 육상 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험(삼성, 엘지, 동부)이 있었으나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 운영 중단
 - 이에, 정부 보조금과 가입자 소득의 일부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이 준비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 도입('08)**

② 보험 현황

- **(보험목적물/재해)** 28개 품목 / 태풍, 적조 등 15개 이상
 - **(보장수준)** 수산물은 시가의 85~90% 수준, 시설물은 원상복구비 전액
- **(정책보험)** 보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가입자 보험료와 보험사업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험 운영의 최종책임 부담
 - **(국가보조)**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어가 부담 **순보험료 50%**, 보험사업자 운영비 **100%** 지원
 - **(국가재보험)** 재해보험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재해 위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위험 분산 시스템 구축
 - * 재보험은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거대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참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체계



손해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위험분산체계(22)	
140%초과	국가재보험(국가 100%부담)	
0%	보험사업자(15%부담)	재보험사(85%부담)

손실 범위	
이익 범위	100%

* 손해율: 보험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III. 성과와 한계

1 성과

< 양식어가의 경영안전망 구축 >

- **(경영안정)** '08~'22년까지 약 33천 어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서 자연재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가입 현황(어가, 누계): ('08) 34 → ('11) 699 → ('17) 17,223 → ('22) 32,826

- 양식보험 품목의 생산량은 양식수산물 총생산량의 약 96.8%수준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경영 안정망 제공 기여

< 양식생산량 중 양식보험 대상품목 비중('21) >
(단위: 천 톤, 억 원, %)

대상품종	양식업 생산량	비중	양식업 생산액	비중
합계	2,401	100	32,559	100.0
양식보험 대상품목	2,326	96.8	29,046	89.2
양식보험 비대상품목	75	3.2	3,513	10.8

- **(소득보전)** '22년까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8천어가에 보험금 약 4천8백억 원을 지급하여 재해피해로 감소한 소득 보전

* 주요 보험금 지급현황: ('12 볼라벤) 319억원, ('16 차바) 133억원, ('18 솔릭) 198억원

- 가입 증가와 재해 발생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증가하여 최근 5년간('18~'22) 약 53백 어가에 2천5백억 원(누적 보험금의 52.8%) 지급

<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험금	-	0.3	2.4	27	364	209	179	140.7	663.6	672	758	1,238	332	107	96

- **(국고지원)** 정부는 어가의 가입 부담경감, 거대재해시 안정적 보험금 지급을 위해 '22년까지 보험료 및 운영비로 약 2천9백억 원 지원

-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어업인에 대한 국가지원은 WTO 협정하에서 국내 보조가 허용되는 대상으로 어가 경영의 불안정성 완화

< 보장성 강화 및 이용편의성 제고 >

- **(보장대상)** 현장수요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보험대상 품목을 28개 까지 확대('08. 넙치 1개)하고, 대상 재해 및 방식도 다양화
 - 태풍, 강풍, 해일, 적조를 시작으로 이상수온, 조수, 홍수, 대설, 유빙, 팽생이모자반 등 보장 재해를 지속 확대

< 연도별 신규 도입품목 >

'08년 ~ '12년	'13	'14	'15	'16	'17	'18~ '22
('08) 넙치(1개)	송어,	강도	송어,	능성어,	터봇,	전복
('10) 전복(1개)	멍게,	다리,	가리비,	미더덕,	메기,	종자
('11) 조피볼락, 굴,	뱀장어,	홍합,	툏	오만	향어	
	미역	다시마		둥이		
('12) 참돔, 감성돔,	(4개)	(3개)	(3개)	(3개)	(3개)	(1개)
돌돔, 쥐치, 농어,						
기타볼락						

- **(어가부담)** 무사고, 계속계약 체결,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확대하여 우량어가 지원 강화
 - 저가형 보급형 상품 도입('21), 최저 자기부담금 하향 조정('13. 어류, '20. 해조류), 보험금 가지급금제도 도입('10) 등 어가 부담 완화

< 양식재해보험 주요 할인내용 >

도입년도	할인 대상
'08	계속계약, 구조, (시설) 비상발전기
'10	(시설) 액화산소공급장치, 고순도산소발생기, 지하해수공급시설
'18	(시설) 해수여과시설, 히트펌프, 인버터
'19	무사고
'22	저밀도 사육어가,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

- **(이용편의성)** 보험 가입절차(9단계→4단계) 및 제출서류 간소화(9종 →6종) 등 양식 어가의 보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제도개선('13)
 - 양식재해피해 발생 시 추정보유수량 산정방법 명확화, 관측기관 확대, 판정기준 개선 등 손해사정절차 합리화

2 한계

□ **(보장성)** 보험 대상 품목 및 보상하는 대상 재해를 지속 확대해 왔으나 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 우리나라 양식품종 총 76종 중 26개만 보험상품화되어 보험 품목 확대, 보장 확대 등에 대한 현장 요구* 지속

* 현장수요 조사 결과, 흰다리새우, 내수면 양식어종(예: 왕우렁이) 등 보험 도입 건의

□ **(가입률)** 아직 '18년 수준의 가입률(44%)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가입률에 편차(0~81.3%)가 심하여 재해대응력 차이 발생

- 최근('15년 이후) 도입한 일부 품목의 경우 가입실적이 없는 등 실제 수용가능성이 높은 보험품목을 우선 도입하기 위한 체계 부재

□ **(보험료)** 양식장의 높은 투자비용으로 양식어가가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가 다른 정책보험보다 높은 수준

- 보험가입금액(양식수산물 4.2억원, 농작물 0.5억원) 차이로 양식보험의 평균 보험료(8.9백만원)가 농작물보험(1.8백만원)의 5배 수준

* 작물가격(가입금액 산정)도 수산물(전복 33천원/kg)이 농작물(사과 3.4천원/kg)보다 높음

□ **(손해율)** 이상기후 등에 따른 거대재해*로 '22년까지 높은 수준의 누적 손해율**을 기록(190%)하여 보험의 지속가능성 저해

- 양식장의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보험대상품목 및 가입조건 결정 시 재해위험도 등 고려 미비

* 양식장 대부분이 주요 태풍 경로인 남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만에 집중되어 적조·고수온에 취약하고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

** 연도별 손해율(%): ('09) 6.9 → ('12) 1,100.5 → ('16) 274.6 → ('19) 384.0 → ('22) 40.4

□ **(인프라)** 보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정확한 손해사정이 전제되나 손해사정의 기초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수

- 관측장비(재해원인 규명), 양식품목 성장데이터*(보험가액 산정) 부족 등으로 유실 보상에 대한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제기 우려

*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표준성장률·잔존율 데이터 등의 집적 및 최신화 필요성 지속 제기

해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미국) '00년부터 연방농작물보험법에 따라 연방농작물보험공사가 보험상품을 마련하여 양식대합조개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 근거법령: 연방농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 (지원내용) 보험료의 55~67%* 및 운영비(순보험료의 24.5%) 지원
 - * 어업인이 선택하는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 국고 보조율 상이,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국고보조수준은 낮아지는 구조
 - (보험품목) 1개 상품(양식대합조개)
 - * 연방농작물보험공사에서 '00년부터 '17년까지 대합조개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8년 본사업으로 전환
 - (재보험) 연방농작물보험공사와 보험사 간 재보험협약 체결, 손해율 100%를 초과할 때 손해율에 따라 보험회사와 공사 간 분담률 차등적용
- (일본) '68년부터 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어업재해보상제 운영
 - (운영방식) 어업인이 어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어업공제조합은 어업공제조합연합회와 정부에 재보험을 받는 형태로 운영
 - (보험품목) 굴, 진주조개 등 패류와 방어, 도미, 은어, 복어, 갯방어, 광어, 농어, 납작방어, 전갱이 등 어류
 - (지원내용)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어업인을 대상으로 납입공제료 일부(25~55%)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 사업비 일부 보조
 - (재보험) 어업공제조합(보험사)·연합회(재보험)·정부(이상재해 담보)가 참여하는 3중 구조로 운영
 - * 손해율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93%를 정부가 부담
- (시사점)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높은 위험률로 민간 보험이 어려우며,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국가재보험 운영

IV.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양식업 경영안정을 통한 어가 활력 제고
-----------	-------------------------

목표	◆ 양식어가 소득안전망 구축 - 보험품목 확대(개): ('22) 28 → ('27) 35 - 보험가입률 제고(%): ('22) 37 → ('27) 45
-----------	--------------------------------------------------------------------------------------------

추진전략	추진과제
-------------	-------------

① 더 든든하게 보장	① 보험대상 품목 확대 등 보장성 강화 ② 다양한 보험서비스 제공 ③ 신규품목 도입체계 구축
-------------	-----------------------------------------------------------

② 더 낮은 부담으로, 더 편리한 보험서비스 제공	① 어가 보험료 등 부담 경감 ②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합리화 ③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

③ 지속가능한 보험운영 지원	① 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②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체계 정립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전문적 사업관리
-----------------	--------------------------------------------------------------------



체계적인 재해보험 운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두텁게 피해회복 지원, 양식업 재생산 뒷받침

V. 전략별 추진과제

1 더 든든하게 보장

◇ 보험 품목 및 보장 확대를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상품 다양화로 양식어가의 보험선택 기회를 확대

1. 보험대상 품목 확대 등 보장성 강화

□ 보험 대상 품목 확대

- 더 많은 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대상 품목을 '27년까지 35개로 확대('23~)
 - 성어(성패) 위주에서 양식환경이 비슷한 경우 수산종자로 보험목적물 확대
- 전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시설물만 보장 가능한 보험상품 도입

□ 대상지역 확대 및 비용보전방식 도입

- 시범사업 품목(11개)은 상품 안정성이 일정수준 확보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보험 적용지역 확대 검토
 - * 지역 확대 검토 시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의지(매칭예산 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 손해사정의 어려움(유실, 빠른 부패) 등으로 즉시보상방식(시장가격 기준) 도입이 어려운 품목은 비용보전방식* 적용 추진
 - * 손해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예: 종자비, 사료비, 인건비 등)을 보장하는 방식

□ 보장 사각지대 해소

- 보험 품목별 실질 성장 속도를 반영한 보상기준*(크기 또는 무게) 현실화가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인수조건 현실화('23~)
 - * 강도다리와 넙치의 성장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강도다리의 목적물은 종전 100g에서 50g 이상으로 보상 대상 확대
- 재해피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재난지원금 한도내, 그 차액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
 - * (풍수해보험) 보험금보다 재난지원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22.4)

2. 다양한 보험서비스 제공

□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상호부조형 보험상품 도입

- 양식어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회복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생산자단체보험 도입 추진('23~)
- 양식어가가 재해피해가 없는 해에 이익의 일부를 특정품목 생산자단체를 통해 자조금(기금)으로 적립, 재해피해 시 복합 지원(보험금+기금)

< 단체보험(안) >

구분	현 양식보험	단체보험(안)
1. 계약자	어업인	생산자단체
2. 피보험자	어업인	어업인
3. 보장방식	실손보상	정액보상
4. 보험료지원	순보험료의 50%	순 보험료의 60%

□ 장기보험상품 도입

- 어가 필요에 따라 보장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식기간이 1년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2~5년 장기보험상품 도입 추진
 - 양식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넙치, 전복, 어류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 품목을 검토한 후 시범 도입*('24~)

* 상품(안) : 보장기간(2~5년 갱신형), 보상하는 재해(태풍, 적조 등 주요재해만 대상)

-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기보험상품도 도입 검토

□ 보험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 양식 품종별, 지역별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분석하여 가입자별 필요에 따라 보장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형 상품 개발

* 갯생이 모자반, 유빙 등 특정 피해만을 보장하는 김양식장 시설물보험 상품 도입 등

- 개별 양식어가가 자신의 상황과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을 선택하고 이에 연동된 자기부담비율 설정이 가능한 보험상품 운영

* 손해율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비율 선택권 단계적 확대('24~)

3. 신규품목 도입체계 구축

□ 보험 상품화 체계 정비

- 해수부, 광역지자체, 보험사업관리위탁사업자, 보험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보험상품화를 검토하는 등 공식 수요조사 체계구축
 - 기관 합동 수요조사 회의 정례화(연 1회 이상)를 통해 지역별 양식 현황 및 보험 도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검토
- 보험화 가능 최소요건*을 규정한 ‘양식재해보험 최소 도입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화 요구 사전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
 - * 양식 규모(어가 수, 연간 생산량), 가용통계 존재 여부, 지방비 보조 여부 등

□ 보험 상품 개발 전문성 제고

- 양식수산물에 대상으로 신규 보험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분야별 전문평가단* 구성·운영
 - * 연구기관(국립수산물과학원, KMI), 수산계 대학, 보험료율 산출 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
- 전문평가단과 보험사가 재해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가능성* 등 정량·정성 평가 실시
 - * 태풍, 강풍 등 재해 원인별 피해량 측정, 수산물 위판가격 존재 여부 등 손해사정 가능성

□ 시장수요에 기반한 보험체계 구축

- 가입률이 저조한 사업 품목은 적정성을 주기적(3년)으로 평가하여 판매 중단 및 상품 구조 개선 검토
- 보상기준 개선 등 상품 구조개선 이후에도 가입실적이 저조한 품목은 판매 종료 추진(일몰 설정)

< 보험상품 일몰(안) >

구분	일몰제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가입실적	3년 가입실적 없음	⇒ 해당상품 판매 중단(1년)	⇒ 현장의견 수렴 상품개선안 마련 개선상품 출시	⇒ 가입이 없는 경우 일몰설정
가입률	3년평균가입률 1% 미만			

◇ 영세어가 등 어업인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모바일 보험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가입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1. 어가 보험료 등 부담 경감

□ 우량 어가 및 최초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 어가의 재해예방 노력을 고려하고 기존 가입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장기계속가입자 또는 무사고 보험가입자 등 우량어가 할인 확대('24~)
 - * (현행) 직전 무사고 5%, 직전 2년 무사고 7% 할인
 - (확대) 직전 무사고 5%, 직전 2년 무사고 7% 할인 + 직전 3년 무사고 10% 할인
- 양식어가가 양식재해보험 가입시 지방비를 즉시 지원하고 지원 절차 등을 양식협회를 통해 적극 홍보
- 최초 가입하는 귀어인 등을 대상으로 보험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요율 혜택 부여 검토('24~)
 - 높은 보험료율이 신규 가입을 저해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최초 개인가입자에 한해 저요율 시범운영(품목 실태조사 실시 예정)

□ 영세 어가 보험료 지원 확대

- 양식어가의 담보수준이나 양식면적,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국가, 지자체) 규모를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24~)
 - 소득수준과 연계한 적정 차등비율 적용 등 영세어가 부담완화
 - * 모든 양식어가 보험료 $50\%(\text{국가}) + \alpha(\text{지자체})$ 수준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비중 조정
- 양식규모와 가입금액이 작은 어가는 보험품목의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최저 자기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차등 적용 추진('24)
 - * (예) 해조류 최저 자기부담금 : (현행) 150만원 → (개선) 50만원
- 고수은 피해에 대비하여 특약보험 가입 홍보, 보험료 지원비율 확대* 등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검토
 - * ('22년) 순보험료 국고지원 확대(50% → 60%) 한시 시범사업 추진

2.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합리화

□ 보험료 할인·할증 구조 개편

- 할증률 결정을 위한 손해율 구간을 세분화(8구간 → 13구간)하고*, 손해율에 따른 할증 변동은 최대 6단계(기준: 제한없음)로 제한**('23~)

* 구간 세분화로 단계별 할증률 축소

** 한번에 최대 할증가능한 요율을 축소: 100%(50% 할인→50% 할증) → 50%

- 양식장에 이미 충분히 보급되어 일반화된 시설의 경우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추가 할인제도 도입 여력 확보('24~)

* 양식재해보험 가입자 중 구조 및 시설할인 해당 어가는 육상 양식장 98%, 해상가두리 양식장 60% 수준('21, KMI)

□ 가입자의 재해예방 노력 유도

- 해양 계류시스템*, 양식 수산물 폐사 및 이상조류 모니터링 기기 등 방재시설 설치 어가에 할인 적용('25~)

* 계류시스템: 수온, 염분, 유속 등 각종 변수를 기록하거나 시계열 자료 생산

< 신규 할인 가능 양식장 설비·장비 예시(KMI, '21) >



- 일정 수준 이상 수협위판실적을 증빙하거나 거래장부 기록 등 손해평가의 객관성 확보 시 어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신설 추진

□ 보험과 정책 간 연계성 강화

- 유기수산물 등 친환경 인증 양식어가 및 탄소배출 저감시설 설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어가에 보험료 할인 추진('25~)
- 양식수산물 생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동화하는 스마트 양식 기술을 도입한 어가에 보험료 할인 추진('25~)

3.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보험 서비스 디지털화

- 보험회사 직원이 수기로 진행하던 보험 청약, 인수 등을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 추진
 - 양식현장에서 모바일기기로 실시간 정보 전송을 통해 보험 청약·승낙을 결정하고 계약체결, 보상절차 등 전자문서 고지('23~)
- 손해평가 현지조사 시 그 결과를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손해평가 신속화('24~)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 어업면허증 등 보험 구비 서류 관련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보험사의 전산 확인 확대
 - * 정보주체 요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분야의 어업면허증 데이터 등을 보험에 활용
 - 어가로부터 서류제출과 정보 수집의 절차를 최소화해 자동 보험 심사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

□ 지방비 지원 현황 정보 서비스 제공

- 양식어가 등이 지자체별 지방비 한도, 지원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접근·이용가능한 플랫폼 구축('23~)
 - * 현재는 보험사업자만 업무 시간 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양식보험 지방비 지원현황을 알 수 있으나 시스템 구축 시 어가, 지자체 공무원이 상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모바일 지방비 지원정보 서비스(안)>

현재		향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보험사업자 내부 전산망 · (이용자) 보험사업자 직원 · (이용시간) 업무 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모바일(인터넷) · (이용자) 어업인, 지자체, 보험사업자 · (이용시간) 상시

◇ 고손해율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협력 채널 구축으로 재해보험 운영 안정성 제고

1. 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보험료율 검토체계 마련

- 보험개발원 등 보험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누적),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24~)
- 각 품목이 목표 손해율(90~110%)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 등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 보장 수준 등 개선 추진('25~)
- 매년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되 요율 급등 우려 시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

* (예) 손해율을 향후 3개년에 걸쳐 반영하거나 차년도 상승률 한도를 50%로 설정

□ 보험사업 관리·감독 강화

-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추진('24~)
- 보험사업자가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 사업관리위탁사업자(농금원)가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24~)
- 보험사업관리 위탁사업자(농금원)가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 운영 등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25~)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운영 제도개선 등 환류기능 강화

□ 보험수지 리스크 관리 강화

- 최근 보험금 수령 횟수가 많거나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는 상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조사 실시

* (예) 최근 5년 내 50% 이상 피해 3회 이상 발생, 손해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불법 양식시설 밀집 수면 양식장 등 대상(합동 조사)

- 타 정책보험 보험료 국고지원* 형평성을 고려하고, 어가들이 골고루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지원 한도액**(5천만원) 설정검토('25~)

* 가축재해보험(5천만 원 한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추진('24~)

** 최근 3년간 보험료 국고지원액 5천만 원 초과 계약: 평균 4건(평균 6천만 원)

- (연도별) ('20) 4건 → ('21) 3 → ('22) 5 / (품목별) 참돔 5건, 조피볼락 5, 감성돔 2

- 최근 재보험사 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국가재보험 책임범위(초과손해율)를 확대했으나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초과 손해율 조정 검토('25~)

* 연도별 초과 손해율 현황(%): ('08~'16) 140 → ('17~'18) 150 → ('19~현재) 140

□ 보험 목적물 현지 조사 강화

- 자연재해 발생시기(고수온, 저수온, 조수) 및 수산물(어류, 전복, 전복 종자) 입·출하 시기를 전후로 양식장 수시 점검 실시

* 1~2월 저수온(돔류), 4~6월 조수(다시마), 8~10월 고수온(강도다리, 조피볼락 등)

- 특정재해 상습 발생지역(고수온 천수만, 산소부족 물덩어리 진해만 등)은 특보 발령 전후로 다항목 수질측정기를 활용한 현지 조사 실시

□ 보험사기 예방

- 일반 국민,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2배 상향 등 적극적 참여 유도

* 현 지급기준은 적발 금액 대비 포상금이 적어(예: 적발 금액이 2~3억 원일 경우 포상금 300만 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불충분

- 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조사반(수협) 지속 운영

2.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체계 정립

□ 품목별 과학적 데이터 확보·활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양식수산물에 대한 표준성장률, 표준잔존율 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 확대
 - * 보험 목적물의 유실, 폐사 등으로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표준성장률과 표준 잔존율에 기반하여 사고 발생 시점의 수량을 추정
- 수협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성장률·잔존율표 개정 추진
 - * 현재 품목별 성장률 등 조사를 위한 대상 지역 및 조사 주기 등이 정립되지 않아 손해평가에 대한 여가 신뢰도 저하 우려

□ 보험금 지급 적용가격 개선

- 각 지역 위판장에서 조사된 양식수산물 가격의 전산입력을 통한 자동 적용가격* 산출시스템 구축('23~)
 - * 적용가격은 손해보상 시 필요한 필수 가격이나 그간 지역마다 무게 별 위판가격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판실적 관리 및 통계산출에 애로
- 품목별 적용가격 자동 산출시스템 시범운영 등 현장적용을 통해 최신 시장가격을 반영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 추진
 - * (현재) 태풍으로 넙치가 8.1일 폐사한 경우 4월~6월까지의 3개월 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적용가격 산출 → (개선) 5월~7월까지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손해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보험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손해평가인 상호 간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도록 지침 개선
 - * 현재 교차평가 근거는 있으나 전년도 손해사정 경험으로 신속하게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교차평가 미실시
-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재조사하도록 의무 부과, 재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신설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전문적 사업관리

□ 양식재해보험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보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목적물의 위치, 면허정보, 계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운영('23~)
- 현장 조사 시 양식장 모니터링 결과를 DB화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담당자가 계약인수, 계약유지, 사고심사 등에 활용

□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수중 드론, 수중카메라, 수질 측정기, 항공 드론 등 장비를 확대 구비하여 보험사고 전·후 모니터링 강화
 - 섬 등 직접 현장조사 혹은 자료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항공드론 등을 통한 원격조사 실시
- 해조류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에 실시간으로 유속 및 유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해양관측부이 설치 확대(현재 총 16대 설치)
 - 고수온, 저수온 피해 예방 및 피해원인 규명을 위해 실시간 수온을 관측 및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
 - * (설치현황) 강원(4대), 경북(7대), 경남(17대), 전남(99대), 충남(10대) 등
- 해상가두리 어류의 정확한 수량 파악 및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어류 개체수를 자동으로 셀 수 있는 장비 개발·도입 검토('25~)
 - * 현재는 보험가입(사고조사) 시 수작업으로 어류 개체 수를 확인 중

□ 재해 피해 현황 정보 공유

- 권역별, 품목별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재해 피해액 등의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여 양식보험재해지도 구축 추진('26~)
- 기상청 등의 자연재해 빈도·강도 정보와 양식종류, 피해액 등 재해보험 자료를 비교분석한 양식보험 재해우심도*를 마련

* 지역별 재해보험 발생 위험도를 초록색(안전), 노란색(중간), 빨간색(위험)으로 표시

VI. 이행계획

추진 과제	추진일정				
	'23	'24	'25	'26	'27
1. 더 든든하게 보장					
1. 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장성 강화					
- 보험 대상 품목 확대					
- 대상지역 확대 및 비용보전방식 도입					
- 보장 사각지대 해소					
2. 다양한 보험상품 제공					
-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상호부조형 보험상품 도입					
- 장기보험상품 도입					
- 보험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3. 신규품목 도입체계 구축					
- 보험 상품화 체계 정비					
- 보험 상품 개발 전문성 제고					
- 시장수요에 기반한 보험체계 구축					
2. 더 낮은 부담으로, 더 편리한 보험서비스 제공					
1. 어가 보험료 등 부담 경감					
- 우량 어가 및 최초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 영세어가 보험료 지원 확대					
2.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합리화					
- 보험료 할인·할증 구조 개편					
- 가입자의 재해예방 노력 유도					
- 보험과 정책 간 연계성 강화					
3.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보험 서비스 디지털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 지방비 지원 현황 정보 서비스 제공					
3. 지속가능한 보험운영 지원					
1. 양식재해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보험료율 검토체계 마련					
- 보험사업 관리·감독 강화					
- 보험수지 리스크 관리 강화					
- 보험 목적물 현지 조사 강화					
- 보험사기 예방					
2.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체계 정립					
- 품목별 과학적 데이터 확보·활용					
- 보험금 지급 적용가격 개선					
- 손해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전문적 사업관리					
- 양식재해보험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재해피해현황 정보 공유					

참고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 보험 대상품목(총 28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 전국
- 시범사업 품목(11) :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전남 여수시
미역	전남 고흥군, 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 거제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 고금면